



国 内 消 息

核燃料会社 年内 설립

과학기술처는 2월18일 全斗煥 대통령에게 古里, 靈光, 蔚珍에 建設中인 原子力發電所 8基분에 대한 核燃料國產化를 위해 금년에 核燃料会社를 설립, 88년까지 年產 2백톤 규모의 핵연료가공공장을 완공하여 年 4천만달러 상당의 수입을 대체하고, 86년까지 1천5백명의 原電設計要員을 확보하여 原電의 80%를 국산화하도록 하겠다고 보고 했다.

李正五과기처장관은 8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올해 3백79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정밀화학, VTR用IC, 저질탄활용연구등을 중점 수행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研究機資材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기술개발비의 제품원가 반영 ▲연구개발出損金 지급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88년 울림과운영의 電算화를 지원하기 위해 86년까지 8천6백명의 컴퓨터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원(KAIST)의 고급도뇌양성기능을 확충하여 91년까지 5천1백61명, 해외도뇌유치를 통해 86년까지 2천2백50명의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기처는 이밖에도 국제기술협력을 강화, 미국과는 정밀계측에 관한 기술, 西獨과는 代替에너지開発, 프랑스와는 核週期에 관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対開発

途上國 技術공여의 일환으로 아세안 5개국의 기술훈련생 2백명을 초청하여 훈련시키겠다고 보고 했다.

研究結果交換 技術集大成을 原電안전관리·運營에 萬全을 기하도록

全斗煥大統領은 2월18일 李正五과기처장관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정부는 技術人들의 연구여전과 생활형편등이 향상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 고급기술인력의 사기를 북돋우는 등 技術人力管理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또 全대통령은 「오늘날의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技術革新없이 경쟁이 불가능하며 특히 資源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혁신이야말로 經濟의死活에 직결된다」고 강조하고 「기술인력을 가급적 많이 해외에 파견해서 선진 첨단기술을 배우게 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모든 과학자들이 각자 자기분야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연구결과를 유기적으로 정보교환하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集大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혁신에 이바지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에 있어서 중복과 낭비를 피하고 정부 및 민간연구소가 협동하여 각분야별로 체계를 세워 연

구의 能률화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原子力發電의 안전 문제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관계전문가를 양성, 原子力發電所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美社와 原電設計 合作

李正五과기처장관은 3월9일 국회에서 현황보고를 통해 原子力發電所設計를 國產化하기 위해 세계적 용역회사인 美國의 벡텔社와 오는 4월 합작회사를 설립키로하고 회사설립계약에 따른 제반 조치를 이미 끝냈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합작회사가 설립될경우 86년까지 1천5백여명의 設計要員을 확보해 国내原子力發電所設計의 80%를 國產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長期電源開發費 8.3%確保 안돼, 發電所附帶工事等 85年後로

政府는 금년부터 오는 85년까지 총 12조1백69억원의 電源개발 투자소요액 중 약 8.3%인 9천9백97억원의 투자재원확보가 어렵게 됨에 따라 장기전원개발계획사업 중 工期에 지장이 없는 공사나 附帶工事等을 85년이후로 대폭연기하고, 韓電借入金에 대한 금융조건개선과 재정지원확대방안등 다

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動資部 및 韓電에 따르면 전원 개발투자비가 금년부터 오는 85년까지 집중되어 이 기간중 소요 투자액은 총 12조 1백 69억 원에 달 하나 이중에 조달 가능한 투자액은 自己자금충당분 4조 원과 借入金 7조 1백 72억 원등 모두 11조 1백 72억 원으로 현재 총소요자금의 8.3%, 借入충당금액의 14.2%인 9천 9백 97억 원의 재원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投資財源부족현황을 보면 82년에 2조 6천 4백 86억 원을 투자해야 하나 이중에 1천 8백 9억 원이 당장 부족되고 83년에 3조 2천 9백 80억 원중 5천 11억 원, 84년에 3조 3백 54억 원중 1천 6백 57억 원, 85년에 3조 3백 49억 원중 1천 5백 20억 원이 각각 부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投資財源이 금년부터 크게 부족되는 것은 장기전원개발계획상 금년부터 85년까지 전원개발투자비가 집중되고 脱石油를 위한 原子力투자비가 늘어나는 한편 公害·災害방지시설의 확충, 国產化提高에 따른 内資소요액 증가, 그리고 内資조달에 의한 자본비증가등의 요인 때문인데 내자조달에 의한 자본비는 지난 77년 8.08%에서 지난해 13.4% (추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전기요금인상을 통한 소요재원마련방식을 지향하는 대신 85년까지 發電所의 도로포장이나 造景공사등工期에 지장이 없는 신규공사를 연기시켜 工費를 3백 4억 원 절감시키고 발전소건물의 改補修나 창고등의 附帶工事도 억제시켜 2백 56억 원을 절감하는 등 投資費의 축소조정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投資報酬率 9% 이상 유지등의 借款先約定조건때문에 投資費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데 現在로선 6천억~7천억 원의 소요재원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韓電, 社長에 成樂正氏,

副社長에 朴世直氏任命

政府는 3月 15日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成樂正 사장직무대리를 승진발령하는 한편 부사장에 朴世直 동력자원부 정책자문위원을, 감사에 申東鮮 영업이사로, 이사에 金秉喆 부산지사장을 임명했다.

스웨덴, 韓國 進出 강력희망, 原電炉型 다변화를

스웨덴 원자력발전 산업사절단 단장인 라스 할레박사는 3月 22일 기자회견에서 스웨덴원자력 산업체는 원자력에 관한 제반기술지식과 기술비법을 한국과 나눌 만 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原電建設에 있어서 스웨덴의 한국진출을 강력히 희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스 할레박사는 韓國이 原電을 建設함에 있어 炉型의 다변화를 시켜야 하며 스웨덴의 수출신용제도도 美·佛등 다른나라와 다른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원전메이커인 아세아아톱사의 총재이기도한 라스 할레박사는 스웨덴이 자주적으로 開發한 BWR은 최신설계의 原子爐로 현재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PWR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國策研究, 民間서 168억원 投資, 9個分野에 130企業참여

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연구개발사업(특정연구개발사업)에 기업총이 금년에 1백 60여 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연구개발사업계획을 내놓고 있어 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과학기술처가 밝힌 국책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한국

중공업, 金星半導體등 1백 30개 기업이 반도체시스템산업등 9개 국책연구분야에서 1백 68억 2천 2백 만 원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정부가 2백 73억 5천만 원을 出損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 出損金이 요청대로 투자될 경우 분야별로 기업체가 부담하겠다는 연구비는 ▲ 반도체 및 컴퓨터분야에서 CMOS 8비트 마이크로컴퓨터개발을 비롯한 36개 과제에 대하여 18개 기업이 32억 7천만 원 ▲ 정밀화학분야에서는 44개 기업이 70개 과제에 대하여 28억 원 ▲ 기계공업에서는 20개 기업이 24개 과제에 57억 8천만 원 ▲ 시스템산업은 11개 기업이 16개 과제에 21억 3천만 원 ▲ 고분자 화학공업은 9개 기업이 16개 과제에 3억 5천만 원 ▲ 생물공업은 4개 기업이 7개 과제에 대하여 3억 4천만 원 ▲ 금속소재분야는 16개 기업이 19개 과제에 9억 6천만 원 ▲ 기타 핵심기술분야는 8개 기업이 10개 과제에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매머드科学展示館 建設 延建坪 2만평 규모로

국립과학관이 크게 확장된다. 국립과학관이 마련한「확장건설계획」에 따르면 금년부터 86년까지를 1단계 계획기간으로 잡고 이 기간중에 1백 억 원을 투입, 현재 대지 3천평, 延建坪 5천평의 규모를 3만평의 부지에 延建坪 2만평의 大型建物로 확충, 이 건물내에 현대과학 기술관을 비롯, 自然史 및 과학기술박물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대과학기술관에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정과 첨단과학의 정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자료를 구비하고 自然史 및 과학기술박물관에는 生物等의 자연과학과 技術의 發展史를 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각종자료를 진열한다는 것이다.

「확장건설계획」은 또한 87년이

후를 제2단계 사업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중에도 1백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天體 및 우주과학관을 신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우주과학분야의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하기로 했다.

확장건설 마스터플랜수립에 착수한 과학관은 현재까지 移転 확장적 격후보지는 南서울 대공원이라고 밝히고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다.

국립과학관의 확장은 ▲ 과학기술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제고와 과학풍토조성을 위한 殿堂으로 육성하고 ▲ 과학민족으로서의 전통과 우리 고유의 과학기술의根源을 찾는 本山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정부의 技術드라이브政策에 따라 과학기술의 사회현장 교육과 학교과학교육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도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政府出損 9個研究機關 研究費, 1人當 평균 350만원

과학기술처 산하 9개 정부出損 연구기관의 금년도 순수연구비가 1백39억원이고 1월 말 현재 이들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은 4천1백여명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 에너지연구소, 동력자원연구소, 표준연구소 등 9개 연구

기관의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9백1억7천7백만원이며, 이중 건설비나 인건비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1백39억9백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구인력은 모두 4천1백4명으로 연구인력 1인당 82년도 평균 연구비는 3백50만원 정도이다.

연구소별로 보면, 한국동력자원 연구소가 연구인력 5백20명에 순수연구비 54억원으로 1인당 연구비가 1천만원을 상회하여 가장 많고 다음이 전기통신연구소로 연구인력 4백55명에 연구비는 34억5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1인당 연구비는 7백60여만원이다.

이밖에 에너지연구소는 연구인력 7백7명에 연구비 25억9천6백만원, 인삼연초연구소는 연구인력 3백13명에 8억5천만원, 기계연구소는 5백20명에 5억8천만원, 과학기술원은 1천1백38명에 9억5천8백만원, 한국표준연구소는 1백57명에 7천2백만원이다.

화학연구소와 전자기술연구소의 경우는 순수연구비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다.

전력공사, 大德연구단지, 古里원자력발전소등을 시찰하고 국내원자력관계인사들과 만나 환담을 나누었다.

감마선利用 農作物 장기저장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利用, 부폐·변질·發芽되기 쉬운 농작물을 장기간 원형대로 저장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너지연구소 방사선 농학연구실은 최근 Co-60의 감마선을 이용, 대표적인 發芽식품인 감자·양파·밤의 저장법을 개발했다.

東亞建設產業(株), 美國機械学会로부터 “N”스탬프 획득

東亞建設產業(株)이 原子力發電분야의 세계적 권위기관인 美國機械学会(ASME)로부터 원자력기기조립 및 설비공사자격증 “N”스탬프를 획득했다.

同社는 지난 3월부터 10名의 기술자를 美國에 파견, 관계기관 및 업계에서 교육을 받는 한편 본사에 원자력전담반을 두어 기술습득에 주력해 왔는데 최근 同社의 기술을 평가한 ASME측이 기술수준을 인정, “N”스탬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달의 到着資料

- ▲原子力産業新聞(日本)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号
- ▲原子力工業(日本) 4月号
- ▲原子力文化(日本) 3月号
- ▲ATOMS IN JAPAN(日本) 2月号
- ▲Nuclear News(美國) 3月, 4月号
- ▲ATOM(英國) 2月, 3月号

- ▲BULLETIN(英國) 2月, 3月号
- ▲KORT NYT(덴마크) 2月, 3月号
- ▲Swedish Nuclear News(스웨덴) 3月号
- ▲原子力포켓북 81/82年版(日本)
- ▲原子力人名録 82年版(日本)
- ▲放射線取扱技術 改定版(日本)
- ▲放射性物質等의 輸送法令集 改定版(日本)